

# 책 정보

K박사의 연구

저자: 김동인

발행일: 2014년 1월 1일

발행인: 김박사

제작/마케팅: 이박사

발행처: 발로만든책

주소: 00시 00동 000번지

전화: 00-000-0000

팩스: 00-000-0000

홈페이지: www.0000000.com

Copyright (C) 발로만든책, 2013

ISBN: 000-00-0000-000-0-00000

이 전자책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발로만든책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나 전체를 어떠한 형태로도 가공할 수 없습니다.

발로만든책은 전자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 K박사의 연구

김동인

목차

[책 정보 2](#_Toc372727642)

[K박사의 연구 3](#_Toc372727643)

[1. 연구 5](#_Toc372727644)

[2. 시식회 10](#_Toc372727645)

[3. 도주 12](#_Toc372727646)

## **1. 연구**

“자네 선생은 이즈음 뭘 하나?”

나는 어떤 날 K박사의 조수로 있는 C를 만나서 말 끝에 이런 말을 물어 보았다.

“노신다네.”

“왜?”

“왜라니?”

“그새 뭘 연구하고 있었지?”

“벌써 그만뒀지.”

“왜 그만둬?”

“말하자면 장난이라네. 하기야 성공했지. 그렇지만 먹어 주질 않으니 어쩌나.”

“먹다니?”

“글쎄. 이 사람아, 똥을 누가 먹어.”

“똥?”

“자네 시식회에 안 왔었나?”

“시식회?”

C의 말은 전부 〈?〉였다.

“시식회까지 모를 적에는 자네는 모르는 모양일세그려. 그럼 내 이야기 해줄게 웃지 말고 듣게.”

이러한 말끝에 C는 K박사의 연구며 그 성공에서 실패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맬서스라나…… 〈사람은 기하학급으로 늘어 가고 먹을 것은 수학급으로 밖에는 늘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지 않나. 박사의 연구도 이 말을 근본 삼아가지고 시작되었다네.

어떤 날(여름일세) 박사는 책을 보고 있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앉았노라는데 박사가 머리를 번듯이 들더니,

“자네, 똥 좀 퍼오게.”

하데그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나. 그래서 똥이란 대변이냐고 물었더니, 대변 아닌 똥도 있느냐고 그래. 그래서 무슨 검사라도 할 일이 있는가 하고,

“뉘 변을 말씀이외까?”

했더니 벌컥 성을 내면서 뉘 똥이던 퍼오라데그려. 너무 어망처망하여 가만 있었지. 글쎄(의사는 아니지만) 검사라도 할 양이면 뉘 변이든 지적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박사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노라니깐 채근도 없어. 흥, 잊었구나 하고 다시 앉으려 하니까,

“퍼 왔나?”

하면서 일어서데그려. 자, 이렇게 채근까지 하는 것을 보면 농담도 아니야. 할 수 없이 변소에 가서 냄새나는 것을 조금 퍼다가 박사께 드렸네그려. 그것을 힐끗 보더니 조금만 퍼왔다고 또 성을 내거든. 나도 슬그머니 결(참지 못하고 발끈 성을 내는 성미)이 나데그려. 그래서 다시 가서 한 바가지 수북이 퍼 왔지. 그러니깐 만족하다는 듯이 웃더니 실험옷의 팔을 걷으면서 나도 연구실로 가자고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내야 이학(理學)상 지식이야 어디 조금이라도 있나. 단지 박사의 서기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깐 좌우간 알든 모르든 따라 들어갔지. 박사는 똥을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시험관에 넣어서 끓이며 세척하며 전기로 분해하며 별별 짓을 다 해보더니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저녁까지 굶어가면서 밤새도록 가지고 그러데그려. 아무리 전기 환기 장치를 했다 해도 그 냄새는 참 죽겠데. 코가 저리고 눈이 쓰리고. 나는 참다 못해 슬그머니 나와버렸네그려. 그랬더니 새벽 2시쯤 찾아. 그래서 가보니깐,

“이게 새 똥이냐, 낡은 똥이냐?”

또 묻데그려, 내니 어찌 알겠나, 변소에서 퍼 온 뿐이지. 변의 신구(新舊)야 알 리가 있겠나.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깐,

“낡은 겐 모양이군. 다 썩었어. 낡은 게야.”

혼자서 중얼중얼하더니 나더러 새 똥을 좀 누라데그려. 나도 성미가 그다지 곱지 못한 사람이라 마렵지 않노라고 해버리니깐 박사는 근심스레 머리를 기웃기웃하더니,

“나두 그리 매렵지 않은걸.”

하면서 그릇을 가지고 저편 방에 가더니 마렵지 않다던 사람이 웬걸 그다지 누었는지 한 그릇 무더기 담긴 것을 가지고 들어오데그려. 아, 우습기도 하고 잠 못 자는 것이 일변 성도 나고 그래서 “밤참으로는 넉넉하겠습니다”고 쏘아 주려다가 그래도 박사가 마지메(まじめ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니깐 그러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전 먼저 자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내 방으로 가서 자버렸지.

그 이튿날부터는 박사는 꼭 연구실에 틀어박혔는데 음식까지 그 냄새나는 방에서 먹고 하는데 오히려 불쌍하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러운 물건을 이리 주무르고 저리 주무르는 양은 우습기도 하거니와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사치하게 길러나고, 아무 고생이며 더러움을 체험해보지 못한 박사가 연구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냄새나는 방에서 음식까지 먹으며 밤잠까지 못 자며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엄숙해 보이기도 하고 존경할 생각도 나데.

이러구러 몇 달이 지났네. 무얼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변을 분석해가지고 무슨 유효 성분을 얻어 보려는 것은 알겠데. 좌우간 낡은 똥은 쓸 수가 없다 해서 그 뒤부터는 집안 하인의 변까지 죄 그릇에 누어서 박사의 연구실로 들어가게 되었네그려. 그러니깐 변소는 늘 소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집안 사람들이라야 박사와 나와 행랑 식구 세 사람과 식모 하나 침모 하나와 사환애 둘이었는데, 때때로는 그 아홉 사람의 것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런 때는 박사는 가족이 20인이며 30인이며 하는 사람들을 슬며시 부러워하는 기색까지 보이는데 연구 재료가 부족해서 박사가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는 너무 미안스러워서 될 수만 있으면 서너 동이씩 만들어보고 싶데.

그러는 동안에 시골 계신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시골 내려가서 한 달쯤 있다가 가을에야 다시 올라왔네그려. 그래서 곧 박사네 집으로 가서 짐을 풀은 뒤에 복동이(사환애)에게 물으니깐 박사는 역시 연구실에 있다 하기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네. 박사는 무엇을 먹고 있었는데 몹시 반겨 하면서 와서 같이 먹자고 그래. 오래간만에 맡으니깐 냄새는 꽤 지독하데.

연구실 한편 모퉁이에 조그만 책상을 놓고 거기서 박사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나도 오라기에 교자를 하나 끌고 그리로 갔지. 점심조차 떡 비슷한 것인데 맛은 〈고기국물을 조금 넣고 만든 밥〉이랄까 좌우간 그 비슷한 맛이 나는 아직껏 먹어 보지 못한 물건이야. 그래서 혹은 양식인가 하고 두어 덩이 소금을 찍어서 먹으니깐,

“맛 좋지?”

하고 묻데그려.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깐,

“똥내도 모르겠지?”

하고 또 묻데그려.

“?”

아닌 게 아니라 냄새가 좀 나기는 하는 것을 이 방 안의 공기 탓이라고 하고 그냥 먹었네그려.

그렇지만 박사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깐 혀 아래서 맑은 침이 핑그르르 돌더니 걷잡을 새 없이 구역이 나겠지. 그래서 변소로 가려고 일어서려다 그만 그 자리에 욱 하니 토해버렸네.

“왜 그러나? 왜 그래. 야, 복동아! 수남아!”

하면서 박사는 일어서서 나를 붙들어다가 소파에 뉘려데그려. 아, 결도 나고 성도 나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박사를 밀쳐버리고 대체 그 먹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네. 둔감한 박사는 내가 토한 원인을 그때야 처음으로 안 모양이데그려.

“먹은 것? 응 그것 말인가? 그것 때문에 토했나? 난 또 차멀미로 알았군. 그건 순전한 자양분일세. 하하하하하(박사는 웃을 경우에는 웃을 줄을 모르고, 웃지 않을 경우에는 잘 웃는 사람이라네)! 건락(乾酪 우유를 응고시킨 식품, 치즈), 전분, 지방 등 순전한 양소화물(良消化物)로 만든 〈최신최량원식품(最新最良原食品).〉”

“원료는…… 그……”

“그렇지, 자네도 알다시피 그……”

나는 그 말을 채 듣지도 않고 다시 일어서면서 토했지. 좀 메스껍기도 하고 성도 나는 김에 박사의 얼굴을 향하여 토했네그려. 박사도 놀란 모양이야.

“아, 이 사람두. 야 수남아! 복동아!”

그때 결나는 것을 보아서는 박사를 한 대 쥐어박고 싶기는 하지만 꿀꺽 참고 내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쓰고 눕고 말았지. 그 뒤 사흘 동안을 음식 하나 못 먹고 앓았네. 글쎄 구역에 음식을 어찌 먹겠나. 아무것이라도 뱃속에 들어만 가면 잠시를 머물러 있지 않고 도로 입으로 나오데그려. 아무것을 먹어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박사는 미안한지 진토제(鎭吐劑 구역질이나 구토를 진정시키는 약)를 주면서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몸소 간호하겠지. 그러면서 연거푸 자양분만 뽑아서 정제한 것이니깐 아무 불쾌할 리가 없다고 설명해 주네그려.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깐 나도 미안하데. 무슨 악의로써 내게다가 그것을 먹인 바도 아니요, 박사 자기도 먹으면서 내게도 좀 준 것이니 말하자면 원망할 것도 없어. 박사의 말마따나 무슨 부정한 것이 섞인 바도 아니요, 과학의 힘으로써 가장 정밀히 만든 것이니 웬만한 음식점의 음식들보다는 훨씬 깨끗할 것일세. 그저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책임 관념상 박사가 그렇게 미안해 하는 것을 보니깐 오히려 내가 미안해 오데그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났지.

“그 음식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내 비위에 맞지 않는 것뿐이니깐 그 마음상만 고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서 연구실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네그려. 처음에는 참 역하데. 박사는 점심은 역시 손수 만든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보기만 해도 구역이 탁탁 가슴에 치받치는데 참 못 견디겠어. 박사는 먹기는 먹으면서도 미안한지,

“이게 어떻담, 하하하하하.”

하면서 먹고 해.

그러는 가운데도 박사는 실험을 거듭하여 몇 가지 조미료를 가해서 맛에 대한 연구를 쌓데그려. 그리고 한 가지의 조미료를 더 넣을 때마다 자기가 몸소 맛본 뒤에는 연대 감정인으로 차마 내게는 먹어보래지 못하고 복동아, 수남아, 해가지고는 애들에게 먹어보래지. 그 애들이야말로 아리가타메이와쿠(ありがためいわく 달갑지 않음)야. 얼굴이 벌게지면서 주인의 명령이라 거역치는 못하고 입에 조금 넣는 것처럼 한 뒤에는 삼키지도 않고,

“먼젓번 것 보담도 더 좋은걸요.”

하고는 달아나고 하는 양은 가련해. 그럴 때마다 정직한 박사는 득의만면해가지고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면서 상금으로 그 애들에게 50전씩 준다네. 감정료지.

박사의 말에 의지하건대 똥에는 음식의 불능 소화물, 즉 섬유며 결체조직이며 각물질이며 장관내분비물의 불요분(不要分), 즉 코라고산(酸), 피스린 담즙 점액소 외에도 부패의 산물인 스카톨이며 인돌이며 지방산들과 함께 아직 많은 건락과 전분과 지방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그 양소화물이 3할에서 내지 7할까지는 그냥 남아서 항문으로 나온다네그려. 그리고 그 대변 가운데 그냥 남아 있는 자양분은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이 헛되이 썩어버리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할 수만 있다 하면 그야말로 식료품 문제에 위협받는 인류의 큰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연구하여 그 방식을 발견했다나. 말하자면 석탄의 완전 연소와 마찬가지로 자양분의 완전 소화를 계획하여 성공한 셈이지. 즉 대변을 분석해서 그 가운데 아직 3할 혹은 7할이나 남아 있는 자양분을 자아내어 그것을 다시 먹자는 말일세그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세 끼씩 먹는 가운데 두 끼는 보통 음식을 먹고 한 끼분은 그 새로운 주식품을 먹으면 이 지구상의 식료 원품이 3할 이상 늘어가는 셈 아닌가. 이 지구에 지금보다 인구가 3할쯤, 한 5천만 명쯤은 더 많아져도 박사의 연구가 실현만 되면 걱정이 없는 셈일세그려. 맬서스도 이후에 이런 천재가 나타날 줄은 몰랐기에 그런 걱정을 했지.

좌우간 그러는 동안에 조미(調味)에 대한 연구까지 끝나지 않았겠나. 나는 첫번 모르고 한 번 먹을 뿐 그 뒤에는 절대로 입에 대지도 않았고 박사도 내게는 권하지도 않았으니깐 모르지만 냄새는 마지막에는 꽤 좋은 냄새가 나데. 스키야키 비슷하고도 더 침이 도는 냄새야, 냄새 뿐으로는 구미도 들데. 그만큼 되었으니깐 이제 남은 것은 〈발표〉라 하는 과정일세그려. 박사는 어림도 없이 발명 경로를 신문에 발표한 뒤에 시식회를 열겠다고 그래. 그것을 내가 우쩍 말렸지. 나는 먹어도 못 보았지만 짐작컨대 맛은 괜찮은 모양인데…….

그러니깐 그 맛있는 것을 먼저 먹여 놓은 뒤에 이것의 원료를 발표해야지. 먼저 원료를 발표하면 시식회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을 것일세그려. 그렇지 않나. 그래서 말렸더니 박사도 그럴듯한지 내 의견대로 하자고 그러더만. 그리고 박사와 나와 의논한 결과 그 발명품의 이름은 박사의 이름을 따라 ○○병(餠)이라 하기로 하고 그 ○○병에 대한 성명서를 박사가 초(草)하였네. 지금 똑똑히 기억치는 못하지만 대략 이런 뜻이야.

─ 생어(M. Sanger)라 하는 폭녀가 나타나서 산아제한을 주장한 것을 일부 인도주의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거기도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어찌하랴. 위생관념이 많아지면서 연년이 사람의 죽는 율은 주는데 그에 반하여 이 지구는 더 커지지 않으니까 여기 사람의 나아갈 세 가지의 길이 생겼으니 하나는 〈도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위생이라 하는 것을 없이하고 살인 기관으로 전쟁을 많이 하여 사람의 수효를 도태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람의 출생을 적게 하는 것〉이요, 나머지는 〈아직껏 돌아보지 않던 데서 식원료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인인 생어는 이미 있는 인명을 없이하자 할 용기는 못 가졌었다. 여인인 생어는 신국면 발견이라 하는 천재적 두뇌도 못 가졌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식적 구제책을 발견하였으니 그것이 〈산아제한론〉이다.

그러나 독창력과 발명력을 가진 오인(吾人)은 그러한 고식책으로써는 만족치 못할지니 오인의 연구는 여기서 비롯하였다. 오인의 매일 배설하는 대변에는 아직 많은 자양분이 남아 있으니 그 전 분량의 3할 내지 7할, 평균 잡아서 5할 약(弱)이나 되는 자양분은 헛되이 땅속에서 썩어버린다(그리고 대변에 대한 분석표며 그 밖 숫자가 있지만 그것은 생략해버리세).

이것을 헛되이 썩혀버릴 필요는 없다. 이것을 자아낼 수만 있다 하면 자아내어가지고 오인의 식탁에 올리는 것이 오인의 가장 정당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각가지로 각 방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고식적 문제도 그 근본을 캐자면 인류의 식료품 결핍이라는 무서운 예감 때문에 생겨난 신경과민적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으니 인류의 생활이 유족하여지면 온갖 문제와 그 문제의 근본까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오인의 연구는 여기서 출발하였다(그리고 연구의 경로도 생략해버리지).

이러한 동기 아래서 이러한 경로를 밟아서 생겨난 이 ○○병을 귀하의 식탁에 바치노니 고평(高評)을 바란다. 운운…….

이것을 인쇄소에 보내서 썩 맵시 나게 인쇄를 해왔겠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회로 박사 댁에서 시식회를 열기로 각 방면에 초대장을 보냈네그려. 그 초대장에는 그저 ○○병이라 할 뿐 원료며 그 동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없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는 없겠지.

## **2. 시식회**

크리스마스 한 사나흘 전부터는 꽤 분주하데. 겨울이라 대변의 자양분이 썩을 염려는 없어. 그래서 소제부에게 부탁해서 열 통을 사들였네그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느라고 사나흘 동안은 박사, 나, 수남이, 복동이 임시 조수 두 사람, 모두 다 똥 속에서 살았네그려, 더럽기가 짝이 있겠나, 에이 구역나, 생각만 해도 구역이 나서 못 견디겠네.

박사도 미안하긴 한 모양이야, 누가 청하지도 않는데 연방 조선호텔 한턱 쓰지 하면서 복동아, 수남아, 하면서 돌아가네그려. 크리스마스 전날은 밤까지 새워가면서 모두 만들어 놓은 뒤에 당일 아침에는 집을 씻느라고 또 야단이지. 글쎄 이 방 저 방 할 것 없이 모두 똥내가 배어든 것을 어찌하나. 아닌 게 아니라 독한 놈의 냄새가 배어든 다음에는 빠지질 않아. 물로 약품으로 씻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향수를 막 뿌려서 냄새를 감추도록 해버렸지.

오후 1시쯤 손님들이 왔네. 원래 착하고 교제성이 없는 박사는 정신을 못 차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일변 웃으며 연거푸 복동아 수남아를 찾으며 조수들을 꾸짖으며 어리등등한 모양이야.

신사 숙녀 한 50명쯤 초대한 사람이 거진 모인 뒤에 2시에 식당은 열렸네. 박사의 취지 설명이 있은 뒤에 I신문사 주필 W씨의 답례로써 시식회가 시작되었어.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어떤 신문기자 한 사람이 박사를 찾데그려.

“K박사.”

“네?”

“이 ○○병에서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좀 납니다그려.”

“?”

이때에 박사의 얼굴의 변화는 내 일생에 잊지 못하겠데. 문득 하얘지더니 웃음 비슷한 울음 비슷한 변한 얼굴을 하더니 별한 신음을 하면서 벌떡 일어서서 연구실로 가. 그래서 나도 따라가려니까 박사는 가던 발을 다시 돌이키며 나를 붙잡더니 내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리 작은 소리도 아니야, 그런 소리로써,

“야단났네그려, 스카톨이나 인돌의 반응은 없었지?”

내야 인돌이 뭔지 스카톨이 뭔지 아나. 박사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더구나 반응인지야 알 리도 없잖아.

그래도 박사의 그 표정을 보니깐 모른다고 그러지도 못하겠데그려. 그래서,

“확실히 없었습니다.”

고 그랬네. 그러하니깐 그래도 아직 미안한지,

“야단났네, 큰일났어.”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데그려.

“아, 선생님 걱정하실 게 뭡니까? 지금 모두들 맛있게 잡숫는데…….”

사실 말이지,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맛있게 먹고 있어. 내 말을 듣고 그 양을 보더니 그제야 박사는 마음이 놓이는지 숨을 내쉬며,

“좌우간 반응은 없었겠다. 확실히 없었어. 여보게 C군, 그 성명서 돌리게.”

하데그려.

문제는 이게 문제일세. 한창 맛있게들 먹는 판에 당신네들이 먹고 있는 것이 똥이외다고 알게 해놓으면 무사할는지 이게 의문이야. 그러니 안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인쇄물을 갖다가 복동이와 수남이를 시켜서 돌렸네그려. 그러니깐 어떤 사람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어떤 사람은 식탁 위에 놓고, 어떤 사람은 읽어보는데 나는 슬며시 빠져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지.

달아는 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노라니깐 무엇이 웩웩하며 콰당콰당해. 뛰어가 보았지. 하니깐 부인 손님 두 사람과 신사 한 사람이 입에 손수건을 대고 게워내는데, 그리고 몇 사람은 저편으로 변소 변소 하면서 달아나고,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중독되었다고 의사를 청하라고 야단인 가운데 박사는 방 한편 모퉁이에 눈만 멀찐멀찐하면서 서 있데그려. 이게 무슨 꼬락서닌가. 망신이데그려. 그래서 박사에게 가서 웬 셈입니까고 물었더니 박사는 우들우들 떨면서,

“야단났네, 망신이야, 큰일났어, 야, 수남아!”

하더니, 우물쭈물 저편 방으로 달아나버리고 말데그려. 그래서 하는 수 있나.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해서 내가 몰래 진토제를 준비해두었던 것이 있기에 내다가 임시 조수며 복동이 수남이를 시켜서 (초대받았던 의사 몇 사람까지 협력해서) 간호들을 한 뒤에 박사는 몸이 편치 않아서 못 나온다고 하고 사과를 한 뒤에 손님들을 보내버렸지.

시식회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났네그려.

그런 뒤에 박사의 침실에를 가보았더니 박사는 몸에 신열까지 나고 헛소리를 탕탕 하고 있지 않겠나. 나도 미안스럽기도 하거니와 딱하데. 그래서 얼음을 갖다가 박사의 머리를 식히면서 한참 간호하니깐 정신을 좀 차려. 그리고 연하여 야단이다, 망신이다, 어쩌나를 연발하는데 거북살스럽데. 한참 정신없이 눈을 한군데만 향하고 있다가는,

“여보게 C군, 이 일을 어쩌나. 야단났네그려, 이런 괴변이 어디 있겠나?”

하는데 난들 무어라고 대답하겠나.

“뭘 하리까?”

이런 대답은 하지만 참 거북살스럽기가 짝이 없데. 소위 사회의 일류라는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똥을 먹여놓았으니 이런 괴변이 어디 있겠나. 세상사에 어두운 박사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뜻도 안 했겠지만 나 역시 뜻밖일세그려. 아니 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예감은 했었지만 박사의 그 걱정하는 태도를 보니깐 예상외로 나도 겁이 나데그려. 내 생각으로는 대상인 피해자(?)를 개인 개인으로 여겼지 그것이 합한 〈사회〉라는 것을 생각 안 했네그려. 그러니 이제 사회의 명사 숙녀들을 똥을 먹여놓았으니 말썽이 안 생기겠나.

## **3. 도주**

그러는 동안에도 연하여 신문기자가 찾아오며 전화가 오는 것을 복동이를 시켜서 모두 거절해버린 뒤에 그날 오후 종일과 밤을 새워가지고 협의한 결과 말썽이 좀 삭아지기까지 박사와 나와 어떤 시골에 한두 달 숨어 있기로 작정을 하였네. 그리고 목적지는 박사의 토지가 몇백 정보(町步 농지 면적의 단위. 1정보는 약 10000㎡) 있는 T군의 박사의 사음(舍音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집으로 작정하였네그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첫차로 그리로 뺑소닐 쳤지.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신문에서 꽤 왁자지껄할 줄 알았더니 비교적 말이 없데그려. I신 문 잡보란에 조그맣게 〈○○떡 시식회〉라는 제목 아래 간단히 기사가 날 뿐 그 굉장한 사건이며 ○○병의 원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어. 아마 신문사에서도 창피스럽던 모양이야. K역에서 내려서 T군을 가는 자동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여관에서 묵은 뒤에 이튿날 아침에야 우리는 그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이 기사를 보더니 박사는 적이 안심이 되는지 처음으로 조금 웃데그려. 그러더니 갑자기 T군은 그만두고 그 역에서 멀지 않은 Y온천장으로 가자데그려. 내야 이의가 있을 리가 있나. 온정으로 갔지.

온정에서도 박사는 생각만 나면 그 이야기만 하자네그려.

“C군, 스카톨 반응은 확실히 없었지? 혹은 좀 있었던가. 왜들 토해? C군, 반응은 확실히 없었나? 아무래도 있은 모양이야.”

“반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없었다 해두 게우는 게 당연하지요. 누가……”

“C군!”

박사는 이런 때는 꼭 역정을 내데그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내 성미도 그리 곱지는 못하니까 막 쏘아주지.

“똥 먹구 구역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

한 뒤에는 일어서서 뒷짐을 지고 한참 서성거리데그려. 그러다가,

“자네 오핼세. 과학의 힘으로 부정한 놈은 죄 없애버린 게 왜 똥이야? 오핼세.”

한 뒤에는 또 이유도 없이 하하하하 웃지.

“선생님, 그렇지 않어요. 분석해 보면 아무리 정한 게라 해두 똥으로 만들은 것을 먹고야 왜 구역을 안 해요? 세상사는 그렇게 공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깐요.”

“공식? 아무리 생각해두 자네 오해야. 그렇진 않으리.”

“그럼 왜들 게웠어요?”

“글쎄, 반응은 없었는데, 혹은 있었든가…….”

단순한 박사는 아직껏 손님들의 게운 이유를 스카톨이나 인돌이 좀 남아서 대변 특유의 냄새가 난 데 있는 줄만 알데그려.

한인은 연정(戀情)을 〈오매불망〉이라고 형용했지만 박사와 ○○병의 사이야말로 오매불망인 모양이야. 우두커니 앉았다가도 문득 스카톨이 있었나 하고는 한숨을 쉬고 하네. 자다가도 세척이 부족한 모양이야 하면서 벌떡 일어나네그려. 곁에서 보는 내가 참 미안하고 딱하데. 너무 민망스러워서,

“선생님 인젠 그 생각은 잊어버리시구려.”

하면,

“잊지 않자니 헐 수 있나?”

하고는 또 한숨을 쉬네. 여간 민망스럽지 않데. 사실 말이지 귀한 발견이야 귀한 발견이 아닌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헛되이 땅속에서 썩어 버리는 폐물 가운데서 평균 5할 약의 귀중한 자양품을 얻어낸다는 것은 인류 경제 문제의 얼마나 큰 발견인가. 우리의 인습 때문에 비위가 받지를 않으니 말이지 그것을 만약 어떤 사람이 원료를 비밀히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다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공헌인가. 그래서 어떤 날 저녁을 먹다가 박사에게 그 떡을 학문광(學問狂)의 나라 독일 학계에 발표해보면 어떠냐고 물어 보았지. 하니깐 대답도 없어. 그리고 나도 그 말만 한 뿐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박사는 잊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날 밤 한잠 들었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깨어서 물을 먹으려는데 박사가 그냥 안 잤댔는지,

“독일도 틀렸어.”

하데그려. 나야 자다 주먹이라 무슨 뜻인지를 알겠나. 그래서 그저 네네 하면서 물을 먹고 다시 누우니까,

“○○떡은 독일도 재미가 없어.”

하고 다시 주를 놓데그려. 그 소릴 들으니까 펄떡 졸음이 천 리 밖으로 달아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즈음 늘 민망스럽던 판에 박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니깐 막 눈물이 나오려데그려. 그래서 왜 그렇느냐고 물으니까,

“독일서는 공기에서 식품을 잡는 것을 연구해서 거진 성공했다니까 이것은 그다지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 못될 것 같어.”

하면서 또 한숨을 쉬데그려. 나도 할 말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겠습니다 하고 다시 먹먹히 있노라니깐 또 찾지 않겠나?

“C군 자나?”

“네?”

“안 자나?”

“네.”

“일본은 어떨까? 나라는 좁고 백성은 많은……”

“말씀 마십쇼. 일인(日人)에게는 소위 결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쿠소쿠라에(糞?らえ 똥이나 먹어라)라는 것은 욕이 아닙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일인들은 더러운 목간물을 벌컥 벌컥 들이마시지 않나?”

“그거야 그래두 ○○떡은 안 먹습니다.”

“안 먹을까……?”

“안 먹지 않고요.”

박사는 또 한숨을 쉬네.

“선생님, 그것을 미국에다 발표해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놈은 먹어줄까?”

“먹을 건 모르지만 그놈들은 아무것이든 신기한 것과 과학이라는 데는 머리를 싸매고 덤벼드는 놈이니깐 혹은 좋다 할지도 모르지요.”

“글쎄…….”

이러한 말을 주고받고 하다가 아무런 해결도 얻지 못하고 자고 말았지.

온정에는 한 달 남짓 묵었는데 박사의 ○○떡에 대한 집착은 조금도 줄지 않데그려. 그 지독한 집착심이야……. 이러구러 한 달 남짓 지난 뒤에 이제는 돌아가자고 온정을 출발해서 K역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온 이상에는 박사의 토지도 돌아볼 겸 T군까지 다녀가자는 의논이 생겨서 우리는 T군으로 갔었네그려.

양력 2월 초승인데 혹혹 쏘는 바람을 안고 자동차로 두 시간이나 흔들리면서 T군까지 가니깐 정신이 다 없어지데. 눈이 보이지를 않고 다리가 뻣뻣하며 코가 굳어진 것 같고 몸의 혈액순환까지 멎은 것 같어. 그것을 겨우 자동차에서 내려서(면장 노릇하는) 박사의 사음의 집을 찾아갔지. 머리가 휑한 정신이 없는 것을 그 집을 찾아 들어가니깐 반갑게 맞으면서 자기네들은 모두 건넌방으로 건너가며 큰방을 우리에게 내주어.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서 다짜고짜로 자리를 펴고 누웠지.

방을 절절 끓여놓고 두어 시간 자고 나니깐 정신이 좀 들데. 박사도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부스스 일어나더니 토지를 돌아보러 나가자데그려. 세수들을 하고 옷을 든든히 차린 뒤에 사음의 아들을 불러서 앞세우고 그 집을 나서려는데 개가 한 마리 변소에서 뛰쳐나오면서 컹컹 짖겠지. 보니깐 변소에서 똥을 먹고 있던 모양이라 입에 잔뜩 발라가지고 그 더러운 입을 쩍쩍 벌리며 따라오데그려. 사음의 아들은 개를 쫓아 버리느라고 야단인데, 나는 박사에게 개도 ○○떡을 먹다가 온다고 그러니깐 박사는 눈살을 잔뜩 찌푸리더니,

“에, 더러워! C군, 실험실과는 다르네. 이놈의 개 오지 마라, 가!”

하며 슬슬 피하며 나가는 모양은 요절하겠데.

박사의 토지라는 것은 꽤 크데. 이백 몇십 정보라는데 말은 쉽지만 눈으로 덮인 무연한 벌판인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좀체 모르겠데.

그것을 한 번 다 돌아보고 사음의 집까지 돌아오니깐 벌써 저녁때가 되었어. 몸도 녹일 틈이 없이 저녁상을 들여왔데그려. 시장하던 김이라 상을 움켜안고 먹지. 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개고기가 있데그려. 그래서 밥은 제쳐놓고 개고기만 뜯어먹고 있지.

박사도 괜찮은 모양이야. 글쎄 한 달 남짓을 일본 여관에 묵느라고 고기는 맛까지 거의 잊게 되었네그려. 그런 판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고기라 박사도 한참 고기만 뜯더니,

“C군.”

하고 찾데그려.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시골서도 암소를 잡는 모양이야.”

“……?”

“고기 맛이 썩 부드러운데 암소 고기야.”

“선생님 개고기올시다.”

“개?”

“아까 그 짖던 개요. 돌아올 때는 안 보이지 않습디까?”

“아까 그? 그 똥 먹던?”

“그럼요.”

박사는 덜컥 젓가락을 놓데그려. 그러더니 얼굴이 차차 하얘지더니 얼른 저편으로 돌아앉겠지.

그러고 힉힉 두어 번 숨을 들이쉬더니 웩 하니 모두 토해 버리데그려.

왜 그러십니까고 나도 먹던 것을 집어치우고 박사에게로 가서 잔등을 쓸어주니까 가만있게, 가만있게 하면서 연하여 웩웩 소리를 내데그려. 그것을 한 10분 동안이나 쓸어주니깐 좀 진정되는지,

“안됐네. 이것 주인 몰래 치우세.”

하면서 손수 걸레로 모두 훔쳐서 문밖에 내어놓기에 나는 그것을 집어다가 대문 밖에 멀리 내버리고 도로 들어오니깐 박사는,

“에, 속이 편찮어. 야, 수남…… 야, 상 치워라.”

하더니 베개를 내리고 벌떡 눕고 말데그려. 상을 치운 뒤에 사음이 불을 켜 가지고 들어왔는데 박사는 돌아누운 대로 그냥 모른 체하기에 몸이 곤하신 모양이라고 사음을 내보내고 나도 베개를 내려서 드러누웠더니 한참 있다가 박사가 돌아누운 대로 찾아.

“C군.”

“네?”

“개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어느 편이 더 더러울까?”

“글쎄 돼지가 더 더러울걸요.”

“그럴까? 둘 다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야, 소고기두 마찬가지구.”

혼잣말같이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또 잠잠해버려. 나도 곤하던 김이라 어느 틈에 잠이 들었는지 모르지. 좌우간 나는 입은 채로 잠이 들고 말았는데 아마 박사가 그렇게 한 게야. 자리를 모두 펴고 옷을 벗겨서 이불 속에 집어넣었데그려. 내야 알 리가 있나. 이튿날 아침에 깨어서야 처음 알았지.

이튿날 아침 눈을 부스스 뜨니깐 박사는 언제 깼는지 벌써 깨어 있다가 내가 눈을 뜨는 것을 보고 C군, 하데그려.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일인도 안 먹을 게야.”

또 자다 주먹일세그려.

“네?”

“○○병은 일인도 안 먹을 게야. 목간물은 벌컥벌컥 먹어두.”

“네, 아마……”

“돼지고긴 좋아두 개고긴 못 먹겠거든. 자네 개고기 잘 먹나?”

“육중문왕(肉中文王)입니다.”

“그럴 게야.”

하더니 한숨을 내쉬어.

그때부터 박사의 입에서는 ○○병의 문제는 없어졌네그려.

그 뒤에 집에 돌아와서도 박사는 ○○병의 문제는 집어치우고 전자와 원자의 관계의 연구를 쌓는 중이니깐 이제 언제 거기 대한 무슨 발명이나 발견이 나올 테지. 그리고 이번 것은 그 ○○병과 같이 실패로 안 돌아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네.

이것이 C가 들려준 바 K박사의 연구가 성공에서 실패로, 또다시 일전(一轉)하여 회개하기까지의 경로였다.

